

■ 반 아이티주의—이성과 진리의 색깔을 묻다

김 달 관

2005년 5월 13~15일 동안에 도미니카공화국 사회와 정부당국은 폭력적으로 3천여 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대규모로 추방했다. 또한 대부분이 아이티계로 검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여자와 아동을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국경지역인 다하본(Dajabón)에서 추방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아이티인 추방은 2005년 5월 9일 아티요 팔마(Hatillo Palma) 지역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상인이 아이티 이주민에게 부당하게 암살된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아이티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그 비인간적 대처에 당혹스러워 했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지닌 반 아이티주의가 여실히 표출된 사건이었다.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국경의 유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있는 이스파놀라라고 불리는 섬을 공유하고 있다. 이스파놀라 섬 서쪽 1/3은 아이티에, 나머지 2/3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속한다. 아이티는 처음에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이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프랑스 어와 크레올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아이티인은 흑인이다. 반면 도미니카공화국은 스페인 식민지였기에 스페인어를 사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경 지역

용하고 대부분은 물라토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식민정책으로 1788년까지 독점무역 체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민초기 20~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파놀라 섬에서 금광과 원주민이 급감하면서 스페인의 관심은 쿠바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정복과 식민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렇게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빠르게 정복·식민화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카피톨라시온(Capitulación)이라고 하는, 정복단(征服團)과 스페인 왕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정복 참여자에게 지금 시각에서 보더라도 기여분에 대해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리브해에서 권력공백과 스페인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고 해적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던 영화 시리즈 <카리브 해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반면 이스

파놀라 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스페인의 독점 무역으로 밀수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스파놀라 섬에 밀수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밀수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현재 아이티 지역인 이스파놀라 섬의 북서쪽, 남서쪽, 해안가 등에 작은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민당국은 밀수로 재정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현 아이티 지역의 도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식민당국의 영향력이 쉽게 미칠 수 있게끔 현 도미니카공화국 수도인 산토도밍고 인근에 살도록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산토도밍고 인근에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에 스페인 식민당국의 영향력이 약한 틈을 타서 1629년경부터 현 아이티의 북쪽에 위치한 토르투가(Tortuga) 섬에 프랑스 해적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스파놀라 섬 북서쪽 해안가에 해적이 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적 그리고 해적에서 농민으로 전환한 프랑스인이 살기 시작했다.

반 아이티주의의 출현과 내용

스페인—프랑스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1697년 리스윅(Ryswick) 조약으로 이스파놀라 섬 서쪽의 1/3을 프랑스에 양도하게 된다. 1700년대가 되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프랑스의 투자로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아이티는 사탕수수를 경작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흑인 노예가 수입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티는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되는 국가가 되었다. 아이티에서의 농업은 설탕생산을 하는 노동집약적 수출농업이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시간도 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티 흑인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 도

미니카공화국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러한 흑인 노예에게 자유인 신분을 허용하였다. 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도미니카공화국은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물라토)이 증가하게 되었다. 1791년에 이르면 흑인 노예의 가혹한 노동이 극에 이르면서 아이



“아이티인들은 꺼져라” 라고 반 아이티주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낙서

티 수도에서 흑인 노예의 반란이 발생한다. 이에 영국과 스페인이 아이티를 도와 노예제를 폐지시킨다. 이에 반감을 가진 프랑스 군이 도미니카공화국을 점령하면서 1795년 바젤(Basel) 조약으로 스페인은 도미니카공화국을 프랑스에 양도한다. 이후 나폴레옹이 아이티에 프랑스 군대를 파견했으나 아이티 노예반군의 승리로 1804년 프랑스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게 된다. 프랑스 치하에 있었던 도미니카공화국은 이후 푸에르토리코와 쿠바의 도움으로 스페인이 되찾게 된다. 그러나 1822~1844년 22년 동안 아이티가 도미니카공화국을 지배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인의 아이티 흑인에 대한 역사적 반감이 첫 번째로 형성된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잠수함 기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아이티(1915~1934년)와 도미니카공화국(1916~1924년)을 점령했다. 이때 아이티인들이 도미니카공화국을 왕래하면서 인종적 갈등이 발생하여 두 번째 역사적 반감이 형성된다. 세 번째 역사적 반감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트루히요 대통령(Rafael L. Trujillo 1930~1961년)이 1937년 아이티와의 국경지역인 다하본 인근에서 아이티인 1만 2천 명을 사살하는 대학살을 계기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반 아이티주의가 공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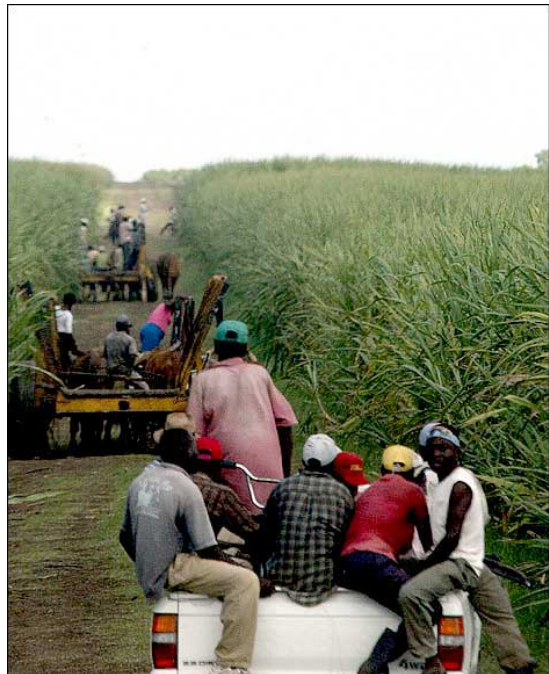
1937년 대학살 이후 트루히요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식인들에 의해 반 아이티주의가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반 아이티주의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아이티는 문화적으로 아프리카 특징이 강하고, 종교도 아프리카 특징이 강한 부두교이며, 인종적으로 흑인성에 기반을 둔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문화적으로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종교는 유럽의 가톨릭이며, 인종적으로는 백인성에 기초한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스페인 전통과 백인성이 아이티의 아프리카적 흑인성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반 아이티주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에게 인종적 화합이라는 인상을 주고, 도미니카공화국 사회의 인종적·사회적 불평등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된 이데올로기다.

설탕농업과 반 아이티주의

카리브 해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주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설탕농업 지역인 바테예스(Bateyes)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아이티인의 이주는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분리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인과 아이티인 사이의 인종차별을 보여 준다.

카리브 해에서 노동은 인종차별 개념을 형성시켰다. 특히 설탕 붐 시기에 사회적 차별과 인종적 거리감이 훨씬 확대되었다. 인종차별은 대농장에서 필요했다.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와 지주에 속하는 노동을 구별해 줄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설탕농장에 아이티 이주민이 출현하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제당산업에서 노예적 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반 아이티주의 이데올로기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한 아이티인을 노예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몰아냈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한 아이티인은 제당산업에서 필요한 값싼 노동자 처지가 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의 이주는 도미니카공화국 자신의 대척점으로서 아이티를 위치시켰다. 이에 우리/그들의 이분법으로부터 누가 국민의 일원이고 누가 외국인인지를 구분하는 국민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 즉 타인이라는 위협의 현시를 통해 국민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 이것이 아이티 이주민과 도미니카공화국 사이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인종주의를 대표하는 이항 대립적 양국 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상상 속의 적으로서의 아이티 개념은 과거에 대한 새로운 표상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의 핵심적 요소였다. 이에 반 아이티주의는 도미니카공화국 역사에서 아이티에 대항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의 정치적·문화적 자율성을 위한 투쟁으로 재인식되었다. 이러한 아이티에 대한 적대감은 양국의 경제적 특징과 인종적·문화적 특징에 기초한 차이와 이분법 구성에 의한 것이다. 이에 뒤처지고 가난한 아이티와 근대적인 도미니카공화국의 대비적 이미지를 촉진시켰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혼혈, 스페인성, 가톨릭’은 아이티의 ‘아프리카, 흑인성’으로 대칭화되었는데, 이는 검은 피부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미



바테에스에서 일하는 아이티 출신 노동자들

니카공화국은 흑인성을 ‘다른 국경’인 아이티에 전가했다.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인과 아이티인 사이에 이항대립이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백인 대 흑인, 스페인 대 아프리카, 가톨릭 대 이교도, 문명인종 대 야만인종 등이다. 아이티의 아프리카 후손이 원시적 조건과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아이티의 전통, 아이티계 흑인 도미니카공화국인, 아이티 이주자에 대한 인종주의, 소비니즘 그리고 계급적 편견에 의한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의 사회적 주변화와 배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국민적 유래와 인종적 상위는 보다 나은 삶을 성취하기 위한 아이티인들의 가능성과 자원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이다. 불법적이거나 비밀스런 방식으로 아이티인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설탕농장과 건설부문 등 힘들고 저임금인 작업에 투입되거나, 커피, 카카오, 쌀 생산부문 등 다른 농업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많은 아이티인들, 특히 여성과 아동은 가정에 주로 머물게 되고, 이에 이들의 도미니카공화국 사회에 대한 접촉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들은 스페인어를 잘 모른 채로 도미니카공화국 사회와 문화에서 주변화된다. 다른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국경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빈곤을 피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한 아이티 이주 여성은 최종적으로 설탕농장에서 일하게 되고, 결국 극한 빈곤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의 생산도구로 여겨진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아이티 아동은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보다 처참한 경

힘을 하게 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아이티 아동들에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게 되면서 아이티 아동은 법률적 행위주체로서 자격이 미진하여 공식교육 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유엔의 1998년 자료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에 약 50만 명의 아이티인들이 거주하는데, 이 중에서 2만 5천 명만이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의한 이러한 처분은 아이티 공동체가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회적·경제적 위계질서에서 신분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이티인이 낮은 보수를 받는 힘든 직업에만 종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식량,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전국 문맹률은 15.5%이지만 설탕농장 부락인 바테예스의 문맹률은 34.5%로서 큰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테예스 주민의 30%는 어떠한 공식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반 아이티주의 비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반 아이티주의에 대한 비판은 첫째, 아이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피상성, 둘째, 도미니카공화국보다 가난한 국가에 대한 기회주의적 비겁함, 셋째, 아이티 이주자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아이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피상성은 아이티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과 관련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역사적 기원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흑인성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로 친 스페인주의에 의거한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구성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보수적 사상이 아이티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더

육 ‘피상성’의 신화를 사용한다. 이 신화는 아이티인의 행위에 대해 도미니카공화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단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과 가치 개입적 편견에 따라 아이티인의 존재를 정의한다. 아이티와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아이티에 대한 경멸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상성’은 신화가 되었고 아이티인의 행동을 정형화시키고자 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보수적 지식인에 의한 올라미가 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보수적 사상은 아이티가 부분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인종주의적 배제를 조성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신화는 가장 가난한 도미니카공화국인이라도 아이티인 앞에서는 경멸과 최상의 거만함으로 행동하는 집단적 무의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애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의 비겁함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으로 타국에 침입당한 경우에 침략을 당한 국가는 가치와 습관을 변모시키는 정도까지 침략국의 관습, 가치를 받아들여만 한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의 출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티인은 1세기 이상 도미니카공화국에 존재했지만 문화적으로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도미니카공화국인은 아이티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이티인이 도미니카공화국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사는 대부분의 아이티인은 파편화된 ‘시민’으로서 이주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단순하게 말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인은 아이티에서 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만 값싼 노동력과 교역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있어서 문화적으로 보다 위협적인 것은 미국문화의 침투다. 이것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위협이 되지만, 그링고(미국인)는 백인이고 부자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모든 도

미니카공화국인이 아이티보다는 미국의 가치를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의 가상적 범죄에 대한 것이다. 아이티인의 범죄는 최소이고 아이티인의 범죄에 대한 과장으로서 아이티에 근거하는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인종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인의 이주는 문제이지만, 부르주아, 지식인 특히 국가는 위선적이고 불명확하며 비윤리적으로 처신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노동하는 아이티인은 아무 권리도 없이 반노예 조건에 있다는 것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세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이주자처럼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이주자도 없을 것이다. ■

김달관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